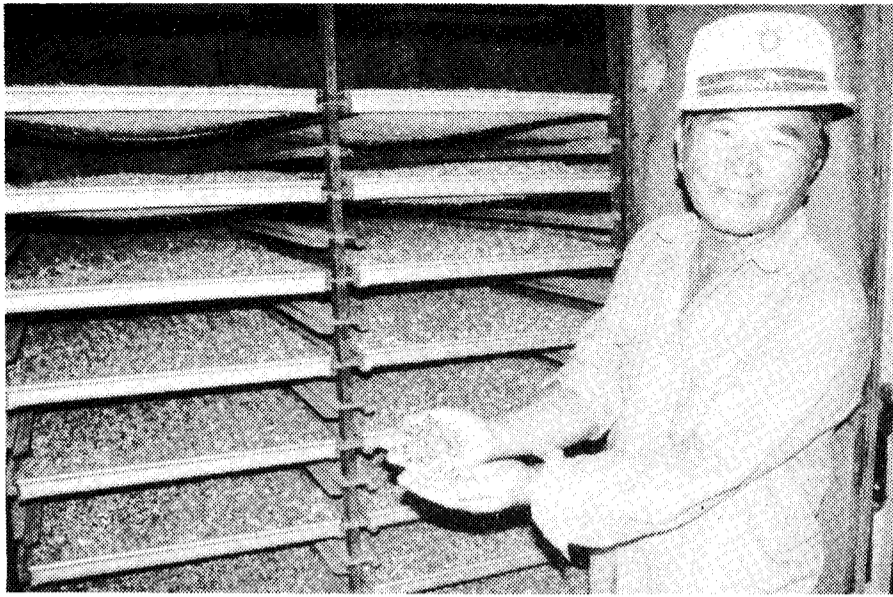


주산산지 순례



⑥

◇수입엑스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향부자 생산량 절반이 재고로 쌓여 있다. (사진은 서석규씨)

“벼농사 보아야 지어 볼 만”

향부자-경북고령군 다산면

향부자 주산지로 알려진 경북 고령군 다산면.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이 이곳 다산을 안고 흐른다.

낙동강 하류, 끝없이 펼쳐진 들녘에선 누렇게 익은 벼가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신듯 고개를 수그리고, 향부자 수확이 한창인지 어우러진 갈대숲 너머로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 오른다.

다산에서 향부자 재배가 시작된 것은 1백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래전 부터.

농경지로는 부적합한 낙동강유역의 사질토에 이곳 사람들은, 극심한 가뭄도 무난히 견뎌내는 향부자를 재배, 제법 짭짤한 소득을 올려 왔다.

다산지역 향부자 재배농가 수는 5백여 농가에 이르며 가구당 평균 재배면적은 1천~2천평정도. 매년 이곳에서 생산돼 나오는 향부자는 약 50만근으로 국내 향부자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추씨 만큼한 크기에 보송보송 털이나 있는 모양의 향부자는 부인 냉증에 좋다 하여 예로부터 한방 보약재로 두루 쓰여 왔으며 요즘들어 제약사들에서 쌍화탕 재료로 또는 향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곳 다산에서는, 향부자에 우슬, 익모초, 소엽, 골담초, 금은화 등을 넣고 같이 달인 물로 식혜를 만들어 먹으면 신경통에 좋다 하여, 봄이 되면 집집마다 향부자로 약식혜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향부자는 4월20일 경 파종

해 10월 초순 부터 수확하게 되는데 채굴작업 부터 포장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이곳에서 30년 향부자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윤창기씨(70)는 “인공건조시킬 경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연건조에 비해 수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면에서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고 설명.

햇빛에 잘 말린 향부자는 기계로 절단, 마대에 담아,

면서 과잉생산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약사들의 수입 엑스제 사용 선호가 국내 향부자 시세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진단이다.

향부자가 최근 시세를 기록할 때는 근당2천3백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가뭄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 중상들이 수확초기에 비싼값으로 대량 사들인 것.

이 지역 농가 및 중간상들에 따르면 작년 향부자 생산량의 절반은 지금도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한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은 약 50

향부자에 우슬·익모초등 넣고

봄이면 약식혜 만들어 먹기도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중간상인들에게 판매된다.

평당 수확량은 2근에서 많게는 4근까지, 2천평 밭에 향부자를 재배할 경우 1천5백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한셈이다.

논 한마지기에 30만원 정도 빠지는 것이 고작이니 벼농사 지어 남는 건 벗짚 밖에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에게 향부자는, 재배하면 일단 괜찮은 시세로 판매할 수 있으니 벼농사 보아야 지어볼 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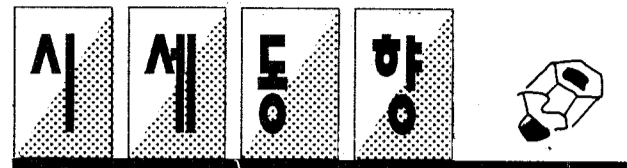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금년 초만 해도 2천2백원 대를 유지하던 향부자가 최근 1천1백원선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이는 93년 이후 향부자 재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만근 정도의 향부자가 생산될 예정이지만 별다른 수매대책이나 방안은 전무한 실정.

다산에서 1천평 향부자를 재배하고 있는 서상현씨(67세)는 『5년전인 지난 90년, 농민들 자체적으로 다산약초작목반을 구성 공동출하와 직거래 주선 등 판로개척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운영난에 부닥쳐 지금은 다산농협에서 작목반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도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농협에서 매년 수매하는 양도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고추나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해 가격조절도 하고 있지



구기자 상승세 수해영향

구기자 구기자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근당 7천~7천5백원선에 거래되던 구기자가 최근 8천~8천5백원 까지 올랐다.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 올 생산량은 예년 생산량보다 3분의 1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재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올 생산량이 워낙 떨어져 구기자 시세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제값 못 받아 왔던 농민들에게는 불행중 다행.

맥문동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맥문동 근당 도매 시세는 거십이 6천7백원, 막막이 5천원 선으로 지난달에 비해 오름세. 햇것이 출하되는 내년 4월 까지 보합세 유지할 전망.

갈근 국내산은 근당 1천4백~1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 1천2백원에 비하면 다소 오름세. 수출되고 있는 갈근은 1cm미만의 것으로 1천8백원 선이다. 수입갈근은 3백~5백원 선이 고작.

당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품목. 근당 4천원선이던 일안당귀가 2천5백원 선으로, 5천원에 거래되던 토당귀가 통으로 겨우 2천7백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지난해 이맘때의 경우, 당귀 근당 도매시세는 6천~6천5백원대 였다.

백출 토백출은 물량이 워낙 귀해서 오름세. 현재 거래되고 있는 토백출 근당 도매시세는 1만2천원 선이다. 수입 백출은 근당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백출은 국내에서는 현재 경북 영주지역에서 다소 재배되고 있다.

산수유 지난달 6천~6천5백원 하던 산수유 근당 도매시세가 한창 수확시기인 요즘 8천원에 거래되고 있어 기현상. 수해 영향은 아니며 “일찍 개화한데다 서리가 와 열매가 다 말라져 버린 탓”이라는 산지인의 전언.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30%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햇것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20일 후면 시세가 다소 내릴 것이라고.

반하 충남 서산이 주산지인 반하는, 생강 작업이 마무리된 후, 11월 중순이 넘어야 햇것이 출하될 예정.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반하 도매시세는 근당 1만1천원 선으로 지난달 보다 다소 오름세. 햇것 출하되기까지는 보합세 유지할 듯.

당귀값 폭락 재고 아직 많아

만 한약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하는 서영운씨(75)는 『농번기철 일 손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에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 나가고 60,70대 노인들이 품앗이로 일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3대째 향부자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는 서석규씨(62세)는 『인건비는 자꾸 오르는데 판로는 없고, 누가 손해봐가

면서 향부자를 재배하려 하겠냐』며 『이 시세로 간다면 아마 내년 부터 아무도 향부자를 손 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지금껏 뺨골 빠지게 고생하고도 평생토록 녀넌한 것 없는 그들이지만, 봄이 되면 또 앞치마 가득 향부자 종근을 싸 안고 밭으로 나갈 것이다.

땅은 언제나 그들 삶의 현장이기에.